연중 제3주일 강론(2019년 1월 27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런치 데이트 (The Lunch Date)’라는 9분짜리 단편 흑백 영화가 있습니다. 대사도 없는 짧은 흑백 영화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곱게 차려 입은 백인 귀부인이 붐비는 기차역에서 흑인 남자와 부딪치고, 들고 있던 쇼핑백을 떨어뜨립니다. 쏟아진 물건들을 급히 주워담고 뛰어가지만, 안타깝게도 기차를 놓치고 맙니다.

다음 기차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역내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샐러드를 주문합니다. 샐러드를 들고 와서 자리를 잡은 그녀는 포크를 안 가져온 것을 알고는 다시 포크를 가지러 갔다 옵니다.

그 사이에, 거지처럼 보이는 흑인 남자가 자신의 식탁에 앉아서 자기 샐러드를 막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질이 나죠.

화가 난 귀부인은 포크를 들고 다가가서, 흑인 남자에게 막 따집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먹고 있던 샐러드를 뺏어 먹습니다. 그 흑인 남자는 그냥 그 부인을 쳐다보고는, 젊잖게 같이 그 샐러드를 나눠 먹습니다.

샐러드를 다 먹은 다음에 흑인 남자가 커피 두 잔을 가져와서 하나를 그 백인 귀부인에게 건넵니다. 화가 좀 가라 앉은 귀부인은 커피를 다 마신 다음, 기차를 타러 갑니다.

한참 가다가, 순간 쇼핑백을 놓고 온 것이 생각이 나서, 급히 음식점으로 되돌아 오지만, 그 흑인 남자도 쇼핑백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한 귀부인은 음식점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아까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손도 대지 않은 샐러드 접시가 놓여있고, 의자 위에는 자신의 쇼핑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착각한 귀부인이 흑인 남자의 음식을 뺏어 먹은 겁니다. 그 흑인 남자는 화도 내지 않고 자신의 음식을 뺏어먹는 귀부인에게 자신의 샐러드를 내어주고, 커피까지 사 준 겁니다. 이 흑인 남자는 오히려 관대한 마음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 귀부인은 자신이 실수로 남의 자리로 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음식을 뺏어 먹고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 부인은 거지 흑인 남자가 예의 없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이 귀부인의 행동이 아주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넉넉함과 여유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조급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누군가가 내 자리에서 내 것을 뺏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에 관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색하고 비판하고 단죄하려 합니다. 나만 잘났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어이없는 잘못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그런 고집과 편견과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상에서의 사도직을 시작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활동을 시작한 곳은 갈릴래아였습니다. ‘성령의 힘을 지니고 그곳으로 갔다’고 루카 복음서는 전합니다. 그리고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낭독하면서, 앞으로의 사명을 요약해서 선포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 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앞으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게 될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당시 회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희망 넘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한때는 이방인의 땅이었고,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시골 마을의 작은 회당.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셨고, 바로 그 작은 회당에서 인류구원의 엄청난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 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기쁘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고 있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마치 빵집을 하는 사람이 빵을 먹어 보지도 못해서 빵 맛도 모르고 허기진 것과 같습니다. 누가 그 빵을 믿고 사겠습니까?

늘 불평 불만이 많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복음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신앙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 생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 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마련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줄 알고, 신앙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없고, 늘 행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 사랑, 행복, 평화입니다. 내 신앙 생활에 기쁨과 사랑과 행복, 그리고 평화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많다면,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옛날 그 가난하고 작은 고을 갈릴래아의 나자렛 회당에서 울려 퍼진 구원의 기쁜 소식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 회당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복음은,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희망과 평화가 가득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기쁜 소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 초대에 응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늘 기쁘고 행복하시고,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